

社說

신뢰 잃어가는 학생회

올해 들어 우리학교내에서 가장 크게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던 총장선출제도에 관한 논의가 지난 7일 제28대 총학생회(총학)의 '재단임명제' 전격수용으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로써 총학과 노동조합 등이 구성한 경희학원민주단체인협의회(경민협)가 '학원 구성원의 총장선출 참여'를 주장하며 내세운 '총장직선제'는 그 실현이 불투명해졌으며, 기존의 방식인 '재단임명제'를 통해 새로운 총장을 선출하게 될 것이 유력해졌다.

총학의 이러한 급작스런 입장전회는 총학이 교수협의회(교협)와의 의견충돌로 인해 총장선출논의가 난항을 겪게 되자 교협과의 논의를 거부하고 학교측과 단독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재단임명제'에 합의하고 학내 구성단체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시행안은 28대 총학의 실제적인 임기만료로 인해 다음 총학에 넘기기로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우리학교 내 재민주단체인들이 결합하여 구성한 경민협의 공동안인 '총장직선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경민협 구성단체중 하나인 총학이 내부적인 협의나 조율없이 독단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향후 경민협의 위상에 대한 문제점을 적지않게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그 구체적인 시행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수렴을 거친다'는 대의에 대한 합의가 어느정도의 실효성을 가질 지가 의문스럽다.

물론 총장직선제는 여러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부작용들이 사전에 충분히 감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장직선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그 부작용을 들어, '재단임명제'에 동의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것은 '총장선출제'에 대한 총학의 주장이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졸속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흔들리는 학생회의 위상정립과 학내 민주화에도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총학은 그 의견수렴이나 처리과정에서의 미흡으로 스스로의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좀더 신중하게 여러 사안에 대처하는 모습이 요구되어진다.

도덕성회복운동, 사회로 확대돼야

지난달 우리학교 조영식학원장이 수상한 UN특별공로상은 현재 우리의 사회적 분위기에 상당한 자극을 주었을 때 더욱더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정치권의 부정부패가 하나하나 만일 하에 드러나고 있는 우리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본다면 특별상의 의미는 더한층 높아진다.

UN은 학원장의 특별공로상 수상 근거로 '평화의 날' 제정과 '세계평화의 해' 지정을 주된 이유로 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오고 있는 도덕성회복 운동의 결과라고 밝힌다.

물론 사회 일각에서는 도덕성회복 운동과 평화의 날 제정등 일련의 움직임에 두고 형이상학적인 이론 위주의 운동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부정부패가 만연된 당금 우리사회의 모습은 도덕성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지경에 까지 도달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문민정부 출범후 5명씩이나 구속되는 은행장들, 일주일도 멀다 하고 검찰에 출두하는 장관급 인사등 현재 우리사회의 모습은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를 소위 땀걸리는 수준이상도 이하도 아닌 느낌이다.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UN특별상을 수상한 조학원장의 도덕성회복운동을 주목한다. 물론 개인으로서의 최초라는 수상의 성격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이어져온 도덕성회복운동이 현시기 우리 사회에는 반드시 필요한 운동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계속되어온 조영식학원장의 아니 경희대학교의 도덕성회복운동은 이제 학교 하나의 차원이 아닌 사회전체의 운동으로 승화되어야만 한다. 조학원장의 UN특별상 수상을 기점으로 그동안 쌓인 도덕성회복 운동의 성과를 결집하여 다시 한번 현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하나의 계기로써 도덕성회복운동을 전개해 나가야만 한다.

시론

문 회 화 (경제와 교육)

OECD가입을 앞두고 아직도 이에 대한 찬반이 국민들 사이에 갈리고 있다. 차제에 OECD가입에 따른 우리의 득실은 무엇인가를 살펴볼까 한다. 먼저 득이 되는 면을 본다면 첫째, 세계의 주요경제 및 무역질서를 거의 빼지 않고 사전적으로 논의하는 장(場)인 OECD에서 사전에 그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그 결정에 우리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과거 우루과이라운드와 같은 중요한 경제적 이슈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대비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불리한 결정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는 득이 있다. 둘째, 멕시코와 체코 등 동구권 세나라가 우리에게 앞서 가입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OECD는 선진국 클럽으로 세계에 알려져 있고 따라서 이에 가입함으로써 우리 수출상품에 대한 이미지의 개선과 투자 등 전반적인 한국의 대외진출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

우리경제 전화위복 기회

셋째, 우리가 비록 많은 항목에서 유보를 받았다고 하나 OECD가 요구한 양대(兩大)자유화 규정, 즉 자본이동의 자유화 및 서비스거래의 자유화가 멀지않아 100% 시행될 예정이므로 국내의 기업인들에게는 (특히 국내금융자원에의 접근이 용이치 않은 중소기업에게는) 해외의 보다 값싼 자금을 국내에서 쉽게 얻어 쓸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또 해외로부터 낮은 금리의 자금이 많이 유입됨으로써 현재 12~15%대



▲OECD가입 비준안 처리 관련 공청회

▲OECD 실무책임자와 우리측 대표

단기적 측면에선 가입은 아직 시기상조 국제여건 반전시 고도성장 가능성 높아

의 국내금리의 인화가 유도되고 또 공급되는 양이 증가하면 이것은 우리 기업인들에게는 이득이 될 것이다. 또 대기업도 OECD가입에 따른 한국의 국가 신용도(credit-worthiness)개선을 당장 해외로부터의 자금차입에 따르는 금리가 낮아진다.

그간 저(低)효율성과 저생산성 등으로 특징지워졌던 우리의 금융, 물류, 보험, 관광 등 서비스산업이 이러한 양대(兩大)자유화로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져 이 때문에 우리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또한 이로인해 종래의 제조업 중심에서 경제의 각 부분으로 경쟁력이 확산되어 2천년대의 우리경제의 전신한

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처럼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면도 적지 않다. 우선 국내시장의 대폭개방으로 기존의 우리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금융, 물류, 도·소매업, 보험, 환경 등에서 개방후 초기 2~3년간은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부정적인 면의 두번째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부담이다.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는 우리도 조만간 가입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 위원회가

권고하는 대개도국(對開發途國)지원 수준은 GNP의 0.7%(1995년 한국 GNP를 기준으로 년간 약 30억 불)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OECD 국가의 평균이 GNP의 0.3%에 해당된다고 볼때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이 원조를 현재의 수준에서 최소 몇배는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제조업 타격예상

앞서 말한 부정적인 면보다 더 큰 문제점은 가입의 시기이다. 특히, 엔저(低), 반도체가격의 하락 등 외국인 요인에 의한 우리 경제

의 2백억불대를 이르는 경상수지적자와 국내경기의 침체가 단기간내에 크게 개선될 전망이 없는 현시점에서 볼 때 OECD가입으로 98년부터 발효될 각 분야에 걸친 국내시장의 개방은 현재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는 우리 경제에 적잖은 피해를 줄 수 있어서 가입의 타이밍상으로 볼 때 좋지 않다.

국론분열 불필요해

이와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OECD의 가입은 우리로서는 숙명적이라 볼 수 있다. 불과 35년전 세계에서 가장 빈한한 농업국이었던 한국이 그간 연평균 약 7.5%대의 고도성장을 계속 유지하여 세계 제11위권의 경제규모와 성숙된 공업국가로 성장하고 나아가서는 OECD에 초창기 반겨 된 것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한국의 무한한 잠재력의 발현인 것이다. 비록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제원시세나 반도체가격 등의 반전이 올 경우 우리는 또 7~8%대의 고도성장 가능성이 가능하며, 따라서 OECD에의 가입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코스이다. 상황이 이렇게 예측되는 이상, 이미 우리의 가입지원을 승인한 OECD와 세계 주요경제국들에게 가입을 연기한다든지 또는 가입을 앞두고 심각한 국론의 분열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금 가입을 연기한다면 5~10년을 더 기다릴 수 있는 한국의 위치가 되게는 이미 우리나라 너무 커진 것이다.

PC 통신원

‘사회가 등지면 난 자살하겠다’

PC통신 자살일기 게재...권력에 대한 싸움의지 표명

자신이 자살할 날짜를 정해놓고 글을 올리는 '자살일기'가 하이텔 PLAZA란에 게재되어 PC통신에 이례적으로 큰 충격을 일으키고 있다.

이 자살일기를 쓰고있는 홍승환(28·ID: SOS505)씨는 대전 비래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으로 '나의 투쟁이 관철되지 않는 한 97년 1월 1일 자살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88년 재건축 전 조합장이었던 유정숙(61·여)씨의 사기, 절도, 이종계약 등으로 조합원 2천여명이 거리로 나왔게 된 후 올해 초 조합장에 새로 부임한 홍씨는 유 전 조합장을 고소하였으나 94년 7월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내리자 항고했고 지금은 대검찰청에서 적법여부를 심사중에 있다. 그러나 유 전 조합장의 동생이 검찰의 고위간부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전 조합장도 명예훼손혐의로 홍씨를 맞고소 한 상태에서 검찰에 대한 모종의 압력이 있었다고 조합원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번 신문에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광고를 냈으나 진전이 없자 '사회가 나에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살 가치가 없다'며 자살을 결심하게 됐다.

지난 18일 처음으로 홍씨의 편지가 PC통신에 게재된 후 23일까지 4천5백건의 조회건수를 기록한 이 자살일기에 대한 PC통신 동호회 회원들은 '자살방지기원회'까지 구성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정의를 부르짖는것은 좋지만 사람은 살고봐야 한다는 의견(LD: 12351004) 문민정부하에서도 끊이지 않는 불의는 이번 기회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하지만 홍씨가 자살한다면 이번 일은 영원히 사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LD: kmmamu)등 홍씨의 투쟁에 동조를 보내지만 자살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홍씨는 전 조합장의 맞고소로 22일 검찰에 소환되었고 여전히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PC통신에 자살일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욱 기자)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의 도서관에서

One & Only

코오롱 그룹 이진용과장 (32세)의 노스캐롤라이나대학 MBA 연수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작년 4월, 혹독하기로 소문난 코오롱 사내 MBA과정에 입문했을 때 이미 고생은 각오했었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공부와 업무의 병행이라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었다. 교육청가치들 사이의 보이지 않는 경쟁, 그리고 무엇보다 의지가 약해져가는 나 자신과의 싸움... 어렵고 힘든 고비고비마다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닫는 순간이었다.
낮설지만 한 이곳에서 영어로 수업을 듣고 다른 학생들과 토론하는 일은 아직도 어렵기만 하다. 그러나 주경야독하는 내 입장을 많이 도와준 회사동료와 사랑하는 가족들, 또 국제화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많이 배우고 돌아오라며 지원을 아끼지 않은 회사를 생각해내서라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본다.
앞으로 2년- 각고의 노력으로 많은 것을 성취하리라. 뜨거운 열정을 안고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려는 나의 의지는 이제 그 출발점에 서있다.

코오롱은 ONE & ONLY 정신을 실천하는 사내MBA제도와 해외 MBA연수, 지역 전문가 해외파견, 신입사원 해외연수 등 다양한 세계화 프로그램으로 "국제화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